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의회소식

제54호

2013 + AUGUST

제263회 정례회

본 회 의
의원동정
의원논단
도정질문
5분발언
주요안건처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연구모임 · 토론회
포토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청춘의 사랑은 생수의 강

박희엽

청춘의 사랑은
생명으로 흐르는 강물 같아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생수와 단비 같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은
믿음으로 스케치하는 거룩한 날말로
마음의 생각에서 만들어 내는 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햇빛이든, 눈보라든, 비바람이든
수 많은 역경을 넘는 징검다리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는
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이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같습니다.

August 2013

제54호 제263회 정례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의회 소식

CONTENTS

02 제263회 정례회 개회사



18 주요안건처리



03 본회의

04 의원동정

05 의원논단

10 도정질문

14 5분발언

21 상임위원회

32 특별위원회

34 연구모임 · 토론회

40 포토의정

41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궁금했어요



| 발 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편 집 |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담당

| 전 화 | 041)635-5102

| 팩 스 | 041)635-5009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디자인 · 제작 | (주)가이인쇄기획 041)667-6400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일부가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이나 가정에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느덧 금년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장마기간이 길고,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충남교육 가족 여러분!

충남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교육가족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개혁의 길은 멀고 힘들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 분석하고 점검하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통해 210만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알찬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장마를 철저히 대비하여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24.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 준 우

“충청남도의회, 제263회 정례회 운영”

- 도정·교육행정 질문,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2 결산안 심사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 등 안건 19건 처리

충청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제263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는 24일 개회식과 함께 회기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5일과 26일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앞으로 1년여 임기를 앞두고 있는 민선 5기 도정 운영과 지난 기간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현황을 집중 점검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장옥 의원(비례)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조속 마련 촉구, 조남권 의원(교육)은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구, 유병국 의원(천안)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필요성, 이종화 의원(홍성)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였다.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천안)은 교직원 시간의 근무수당 규제방안 필요, 장기승 의원(아산)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대책촉구, 김홍열 의원(청양)은 귀촌·귀농 새로운 시책강구 요구, 박찬중 의원(금산)은 충남도 시행사업 경제적 타당성 주문, 조이환 의원(서천)은 장항국가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필요, 김석곤의원(금산)은 추부IC 진출입로 안전문제 해소 절실에 대하여,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유병돈 의원(부여)은 자퇴학생 해결을 위한 대안 학교 증설 필요, 이기철 의원(아산)은 공경심 함양 위해 노인을 어르신으로, 김정숙 의원(비례)은 칠갑산 도립공원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김지철 의원(교육)은 천안, 아산 과밀학급 해소 촉구, 김득웅 의원(천안)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충남도 관광사업 육성 필요성에 관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7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광열 의원(아산)은 2016 가장 기억에 남는 전국체전을 위한 출발, 맹정호 의원(서산)은 정부의 기업입지 보조금 폐지 움직임과 관련하여 적극 대응 주문, 조길행 의원(공주)은 지방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홍성)은 공공 의료원 공공성에 맞게 환자 편의기능 및 정부지원 확대, 김문권 의원(천안)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 지구 활성화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과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석곤 의원(금산)을 부위원장에는 이도규 의원(서산) 등 총 20명을 선임하고 앞으로 남은 1년간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 소관 5조 2,606억원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조 6,154억원을 가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충청남도 추경안은 당초예산 4조 9,413억원보다 6.4%인 3,193억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청은 당초 2조 5,100억원보다 4.2%인 1,054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도 최종 승인했다.

의원동정



이준우 의장,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준우 의장(보령)은 7월 19일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 관리환경에 앞장서 온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준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내 낙후된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3농 혁신과 함께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에 충청남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철 의원, 미담 뒤늦게 알려져 월남 파병수당 도서관 건립 종잣돈으로 천안시에 기증

이기철 의원(아산)은 월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청룡부대에 지원 입대, 생명을 담보로 받은 수당을 도서관 건립에 종잣돈이 돼 달라는 사연과 함께 당시 천안시장에게 47달러를 송금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이기철 의원은 23년간 온양 온천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김종문 의원 선출

7월 14일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체 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종문 의원(천안)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김종문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을 적극 지원하여 도민이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의 중요한 의미



장 기 승 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보면 100년전 대한제국을 보는 것 같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자국의 이권을 채우려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소위 “동북공정”으로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여 한국사를 한강 이남으로 국한 시키려 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각종 이권 개입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포석과 통일 한국에 대비하여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미리 차단하고 간도 영유권 분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제국주의와 역사왜곡은 더욱 심각하다.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이어 독도 망언과 교과서 왜곡까지 억지주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국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거사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민족이 화합하여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할 때이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분단 상태이다. 더구나 요즘은 긴장의 일색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입주 기업 철수 등 불안한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동족 분단의 나라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때문에 통일은 우리의 오랜 숙원이다.

해법을 찾기 위해 통일을 이루어 경제대국이 된 독일을 주목해야 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4년째이다. 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 원동력

으로 경제력을 꼽는다. 빵과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걸고 베를린 장벽을 넘어선 동독인들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남한을 향한 북한주민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

미국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와 함께 풀어야 하고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기 적절한 연설이라 생각한다. 신뢰 프로세서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남북의 긴장완화와 소통이다.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민족화합과 소통의 상징성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에 머리를 숙인다.

고즈넉한 백제 궁궐에서 여유와 감동으로 채운 전통혼례



윤 미 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여자라면 누구나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꿈꾼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식은 꿈과는 거리가 멀다. 신랑신부는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시간에 쫓겨 식을 치르고, 하객들은 혼잡한 식당에서 눈도장을 찍고는, 서둘러 피로연장으로 직행해 식사하고 헤어지는게

안타까운 우리의 결혼 풍경이다.

그렇다면 신랑신부와 하객들까지 즐겁게 오래 기억에 남는 특색 있는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필자는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백제문화단지의 현장시찰을 가서 콘텐츠 보강에 대해 주문하던 중, 이 아름다운 경관과 확 트인 잔디밭을 신랑 신부들에게 선물하면 정말 근사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 역사테마파크에 어울리는 전통혼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따뜻한 봄 햇살 속에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백년가약을 맺으며 첫 주인공이 되어 화축을 밝혔다.

백제문화단지는 궁궐에서 풍겨 나오는 고즈넉함과 웅장함, 백제 특유의 우아한 세련미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국내와 일본에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백제시대 건축 양식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1400년 전 찬란한 대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화려하게 부활된 것이다.

사비성은 왕궁, 능사, 생활문화마을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궁은 궁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천정전과 동쪽의 문사전, 서쪽의 무덕전 등 14개동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다.

살아 숨쉬는 궁궐을 만들기 위해서, 품격은 높이고 문턱은 낮춘 궁중 혼례는 천정전과 생활문화마을 등에서 신랑신부가 자유롭게 협의해 진행할 수 있고, 우천 시에도 안심하고 궁궐과 회랑 등을 선택해 편안하게 식을 올릴 수 있다.

웅대한 백제의 기상이 느껴지는 천정전은 절로 경건해 지게 만들고, 넉넉한 궁궐의 품은 정갈하고 은은한 맛을 담아 번잡함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의 전통 혼례는 동방 예의지국에 어울리게, 진지함과 아름다움이 서려 있으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 가라는 선조들의 결혼관을 마음에 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된다.

전통혼례는 신랑신부가 주축이 되서 양가친지가 예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참석한 하객들과 관광객들까지 흥겨운 잔치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넓은 잔디밭에서 맛과 품위를 간직한 정통 한정식 전문

업체의 뷔페요리를 피로연으로 즐기며, 식사를 마친 후에는 걸음을 서둘지 말고, 백제문화단지를 무료로 둘러보면서 가만가만 시공 속으로 마음을 옮기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눌 수 있다. 궁 뒤편 동산에 있는 정자에 올라 전경을 보면 장엄한 경관에 감탄이 나오고, 위례성과 생활문화 마을을 함께 거닐면 백제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새신랑신부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특별한 리마인드 웨딩을 선물하고 싶은 자녀들에게도 적극 추천하며, 늘어나는 외국인 결혼에도 전통혼례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알려 주는 좋은 선택이 되리라 자신한다.

앞으로 전통혼례를 통해 우리 고유의 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 또한 허례허식 결혼을 부추기는 풍토가 사라지고, 소박하고 정이 담긴 우리 혼례 문화가 정착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 더 특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우리 겨레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혼례가 더 널리 퍼지도록 필자도 계속 노력하겠다.

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김 홍 열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22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의 의정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심의해야 할 예산은 9배정도 늘어나 2013년도 예산이 무려 209조원에 달하고 매년 10%정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0년부터 2012년 말까지 1301건의 중앙 사무가 지방이양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방대하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하여 지방의원의 개인적 전문성을 높인다고 해도 혼자서 자료 분석, 예산안 및 결산심사, 일반 안건심사 등 모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지방의회 현실은 22년 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 무늬만 지방자치 이지 우리나라 현실은 요즘 흔히 말하는 집행부가 '갑' 이고 의회가 '을' 인 격으로 자율성은 전혀 없고 해당 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의회가 집행부와 똑같이 '갑'의 성격을 가지고 대등하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뒷받침하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의회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비된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의회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부의 집행권을 견제하여 권력분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대한 무소불위 단체장의 권력을 도민이 선출한 도의원들로 하여금 도민들을 위하여 적정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일 것이다. 이런 검증자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견제를 받아야 할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하는 동상이몽의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 수가 적어서 인사운영이 어렵고 별도 인사권이 독립되면 공무원의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야말로 억지 아닌 억지논리로 일변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위에서 나열하였듯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고 있지 않은 중앙부처 및 집행부 기득권자들의 괴변적 논리이다.

그러나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제하에서 입법·행정·사법부가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국회는 국회의장이 행정부는 대통령이,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각각 행사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아닌 의장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모처럼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동안 도입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던 '광역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를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방안은 추후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보좌관제나 1인 1명 보좌관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늦은감은 있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좌관제만 실시하고 사무처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원들은 선거에 의하여, 보좌관은 의원들의 추천 등에 의하여, 사무처 직원들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임명에 의하여 임용되는 그야말로 의회 내에 '한 지붕 세 가족'이 동거하는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관대립형인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장에게 인사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이제는 지방의회가 부활 된 지 20년이 넘는 성년이다. 이에 걸맞도록 의회와 집행부 사이 충실하고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각종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체계를 확보하여 의정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취약계층 돌봄, 편의 위한 공공의료지원 확대해야



이 중 화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진주의료원이 3개월 논란과 진통 속에 폐업하였고, 그 논란은 전국 지방의료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0일자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내 의료원의 운영적자가 천안의료원 39억원, 공주의료원 17억원, 홍성 의료원 25억원, 서산의료원은 6억원 이나 된다고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적자 운영과 강성 노조'로 기인했다는 경남도지사의 주장과 '자산가치가 대폭 늘어나고, 경영상 호전할 기회가 조성되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과 목적 때문' 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맞물리는 것은 경상남도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의료원이 수익성과 자립경영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관은 아니며, 의료도 복지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가 낮은 나라 이다. 그 만큼 적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병원은 사회 공공재이며, 공공의료원은 더욱 수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기관이다.

또한, 공공의료원은 지역주민과 특히,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빈곤층,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와 임상연구를 통한 보건 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공의료원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굳이 경영상 문제점을 말한다면 저급병원 이미지와 지역 대학병원과 진료서비스 비교,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과 국민적 의료 욕구가 높아 지는 등 환자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였으나 시설·장비 등 규모의 현대화가 늦어진 이유도 있다. 2011년도 기준 의업수입의 74.2%가 인건비로 민간병원의 평균 임금에 비해 46% 높은 점과 공공의료를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의 공익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의료 기관이 하지 못하는 공공 의료 역할을 도맡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의 주 고객인 취약계층을 위하여 충남도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더욱 폭 넓게 개선하고, 투자도 늘려야 한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서울시의료원에서는 가족이 아파서 입원을 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안심 병원은 간호사가 다인 병상의 간호·간병을 24시간 전담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도 투입되어 환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경제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함에 있어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울시 의료원은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사 79명을 총원하고, 병원보조원 24명, 사회복지사 등 5명도 추가로 채용하여 총 14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함으로써 기존 간호사 1인당 평균 17명에서 지금은 평균 7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전문화된 돌봄서비스와 간호사 복지를 개선 하였고, 가족의 심리적·물적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보호자는 환자를 전문가에게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일상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충남도의 총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이며, 여성 가구주 수는

30.5% 증가하고, 독거노인 수는 25.0%로 전체 노인 수 중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는 38.8%로 고령층, 저소득층, 농림·어업 종사자 층에서 유병율이 높게 나타났고, 지방의료원을 이용한 경험 또한 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적자운영의 문제보다는 공공의료의 공익성에 맞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되어 서울시의 환자안심 병원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취약계층에게 돌봄과 편의를 위한 공공병원으로써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추경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 로드맵 작성 등 필요



조길행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찬반논란은 있으나 국내 과거 사례를 보면 재정 지출이 경기 전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찬성론자는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순환을 안정화시키면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소득 및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는 정부지출이 증가하더라도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 감소로 인해 총수요는 감소할 수 있어 재정정책 효과가 미미하여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시 추경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2003년 카드사태 당시 추경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하였

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경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국내 경제 상황은 2013년 1월 -2.8%를 기록하고 내구재 판매 증가율 폭도 위축되어 소비 여력 약화의 양상이 심화되고, 국내 기계수주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자본재 수입도 2월 -17.7%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설비투자 부진세가 전망, 건설수주 증가율도 2013년 1월 -53.0%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건설경기 회복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 수출이 2013년 2월 -8.6%로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되어 1~2월 수출 증가율이 0.5%로 2012년 5.5%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 2230억원, 특별회계 963억원으로 3193억원을 편성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였다. 도 재정의 전체규모는 당초예산 4조 9413억원 대비 3193억원이 증가한 5조 260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경예산은 도민의 맞춤형 복지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편성되었고, 지속가능 경제육성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경제진흥원 부지매입,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반영, 국지도 확포장,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긴급복지 지원, 3농혁신 시범사업, 편안한 물길조성, 축사시설 현대화 등에 편성되었다.

필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 정도가 심각한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재정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고,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해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야 하며, 추경 편성 시기와 투입 시기 사이의 시간 차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조기 집행 등과 신속한 추경 예산 확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추경 투입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예산 투입 로드맵 작성을 통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도정질문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6. 25)



김종문 의원
| 천안 |

Q 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증가 원인 및 규제방안 필요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이 2010년도 203억원, 2011년도 239억원, 2012년도 287억원으로 해마다 36억원에서 48억원이 증가한 원인과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학교는 적은 예산으로도 전자인증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므로 도내 모든 학교가 전자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 수당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A 교육감 권한대행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이 매년 증가된 이유는 지급액 단가가 2011년도에는 7.7%, 2012년도에는 12.9%가 인상되었기 때문, 또한 주 5일제 수업이 2011년도에는 격주제, 2012년부터는 전면 실시에 따른 학부모를 위한 토요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 후 돌봄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당 지급액이 증가됨. 금년내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하여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이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



장기승 위원장
| 아산 |

Q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대책 촉구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일반쓰레기와 혼재하여 버리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시군에서 요금 부과를 위한 전자태그시스템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 엄두를 못내고 있으므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촉구하며, 음식물 쓰레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확보·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마련.

A 도지사 그동안 공주, 보령, 태안 등 3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하여 왔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책이 전면 실시되고 있음. 앞으로 대도민 홍보강화 및 중앙정부에 전자태그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겠음.

A 환경녹지국장 도민불편 및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도는 각 시군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음,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제정토록 검토하겠음.



김홍열 의원
| 청양 |

Q 귀농·귀촌을 위한 새로운 시책 강구

충남이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이 있음에도 귀농·귀촌지역으로 외면받고 있음. 대책 강구바람

A 도지사 귀농인력이 농촌지역에 활력화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음. 토지 마련 및 영농기술보급 시스템 추진

A 농업기술원장 도 핵심정책으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농인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제공과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 추진

Q 반쪽교실 해소대책 마련

도내 초·중·고 22개교 중 30개 교실이 반쪽교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칠판의 높이가 맞지 않고, 일조량 부족으로 학습권 침해. 대책?

A 교육감 권한대행 반쪽교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환경을 위해 특별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소규모 농촌학교가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음.



박찬중 의원
| 금산 |

Q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군비 미부담 대책, 의료정책 마련 등

주민숙원사업에 관심부족으로 시군비를 미부담하거나 사업 추진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며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정책 마련 촉구. 또한 국비확보 당부

A 도지사 시군비 미부담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도내 4개 의료원에 대한 운영방침을 의료원과 도가 적절히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추진, 지역 국회의원과 국비확보 위한 설명회 등 개최

Q 학부모 경제적 부담 감소대책 및 도의원과 간담회 추진

학교 운영비를 학생들에게 걷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통을 위해 도의원과 학부모와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요구

A 교육감 권한대행 2014년부터 읍지역 고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전면 실시 예정이므로 향후 학생들에게 운영비를 걷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를 만들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여러 가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적정 운영토록 지시



조이환 의원
| 서천 |

Q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필요

금년말 착공하는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내 외직업체를 이주시키는 것과 더불어 미래형 첨단산업 아이템 발굴을 통한 기업유치 필요. 유치가 결정된 수생바이오매스사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 증폭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관된 기업유치 촉구 및 도 차원 지원 미흡

A 도지사 도에서는 하구언을 중심으로 장항에 대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으며, 증폭발전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거쳐 실용화 방안을 검토하겠음.

산단 등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으나 재정지원에는 한계성이 있어 아쉬움.

A 기획관리실장 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 5~6년간 행정적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전복과 연계하여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A 경제통상실장 자연사랑에너지연구소에서 개발한 에너지 저감시설에 대하여는 충남테크노파크와 실용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김석곤 의원
| 금산 |

Q 추부IC 진·출입로 안전문제 및 전력난 해소대책 촉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추부IC 진·출입로는 17번 국도와 37번 국도가 서로 동선이 겹쳐져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대책 촉구

A 도지사 추부IC 진·출입로 구간은 도로 구조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내년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 해소토록 조치 계획

A 경제통상실장 전력난 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홍보하고 다양한 대책 강구중

Q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학력신장, 전력난 해소대책 촉구

2012년도 국감결과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4.8%가 감소된 반면, 우리 도는 2010년 대비 2012년에는 초교 8배, 중교 4배, 고교 3배 증가. 이에 대한 대책은?

A 교육감 권한대행 학교폭력은 학생들에게 해답이 있으므로 위기학생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단·상담·치유교육 실시 및 학력신장을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블랙아웃대비 에너지 절약대책에 총력

도정질문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3. 6. 26)



유병돈 위원장
| 부여 |

Q 자퇴학생 해결 위한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증설 필요

도내 학교 자퇴학생 증가와 학생수 감소원인은 잘못된 학교 운영방식이 원인. 자퇴학생을 위해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 증설 필요

A 교육감 권한대행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중

Q 행복공감학교 운영 및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등 관련

행복공감학교가 2011년부터 20개교 목표로 설립 운영중, 선정기준 및 2015년이후 운영 여부, 도 주관으로 운영 이유,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은?

A 도지사 행복공감학교는 도는 재정적으로 지원,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도록 적절히 업무분장, 2015년이후 운영관계는 교육청과 협의 결정,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과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민간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두고 추진



이기철 의원
| 아산 |

Q 공경심 함양을 위해 '노인'을 '어르신'으로 표기

서울시는 부서명칭을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바꾸고 행정용어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음. 충남도의 의지는?

A 도지사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도에서도 이미 '노인'을 '어르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업무 추진

Q 엔저 현상으로 우리 경제 어려움, 대책은?

최근 일본은 불황 타계책으로 엔화 가치를 낮추어 자국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어려움 많음, 대책은?

A 도지사 대일 수출을 위해 국산제품 품질향상이 최선의 대책임.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및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대책 강구

Q 학생들에게 국민교육헌장 이념교육 및 고교 평준화 대책은?

A 교육감 권한대행 현재 국민교육헌장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는 현재 타당성을 용역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적정 추진



김정숙 의원
| 비례 |

Q 칠갑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청양대 학과 신설 촉구 등

칠갑산 도립공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장곡사 주변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 칠갑산 옛길 공원 구역을 용도지구 해제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청양대학에 3농혁신 경영자과정 신설 및 재독 한인마을 조성 촉구 청양 종합사격장 건립 대책은?

A 도지사 7월중에 있을 공원계획 변경시 장곡사 주변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칠갑산 옛길 공원구역 용도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 청양대 학과 증설은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심, 3농혁신 경영자 과정은 수립중인 청양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종합검토 하겠으며, 구봉광산지구 종합사격장 건립은 취소 되었으며 앞으로 청양군과 협의 대책 마련

A 기획관리실장 재독 한인마을 조성사업은 진입로 등 공공분야 적극 지원

A 환경녹지국장 칠갑산내 휴양소 건립은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종갱신 등 적극 지원



김지철 의원
| 교육 |

Q 천안·아산 일반계고 과밀학급 해소 및 특정직 특정학교 출신

편중배치 해소대책, 전문직 인사비리 추가조사 여부 등

수년간 천안·아산지역은 인구 급팽창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학생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로 일반계 고교가 과밀학급이며, 교장·교감 전문직에 특정학교 출신이 편중되어 공정성이 결여, 전문직 인사비리 관련 드러나지 않은 비리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 여부

A 교육감 권한대행 비리관련자가 추가로 드러나 수사가 진행중이며, 자체에는 수사권이나 금융조사권이 없는 등 한계점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시 조사할 계획이며, 전문직에 특정학교 출신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력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겠음.

A 교육행정국장 천안·아산 지역은 학교 신설과 학급수 증설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발생, 지속적으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음.



김득웅 의원
| 천안 |

Q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충남도 관광사업 육성 필요

예로부터 호국충절의 고장인 충남이 충무공 이순신, 김시민 등 지역의 호국충절 선현들을 활용한 관광계획이 없어 아쉬움.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과 지역의 호국충절 선현의 생가 및 지역 문화 등을 묶은 호국충절관광벨트사업과 병천순대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방안 등 추진 계획은?

A 도지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나 우리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호국충절관광벨트사업과 병천순대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방안은 천안시와 협의하여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음.

A 문화체육관광국장 제5차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원에 대하여는 제6차 관광개발계획 수립시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음.

5분발언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3. 6. 24)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조속 마련 촉구



김 장 옥 의원
| 비례 |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통학차량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사실 교육기관은 대부분 지입차량이 유치원생들의 통학을 맡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 감시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3월 현재 도내 1,060개 어린이집이 1,282대에 이르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과 운전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차량운행 안전교육 기준도 없고 미미수자에 관한 벌칙조항이 가벼워 사고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장과 운전자들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연중 감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구



조 남 권 의원
| 교육 |

수석교사의 자질 부족, 근무태도, 근무여건, 동료 교사와의 관계 미숙, 동료 교사의 수업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 조직 면에서 갈등 야기, 목적에 맞지 않는 잦은 출장 등 5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석교사의 출장을 보면 충남보다 서울, 부산, 경주, 여수, 부안, 제주도, 진주, 통영 등의 호텔이나 리조트, 컨벤션 센터 등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출장이라고 강조했다.

조남권 의원은 대안으로 “학교컨설팅 장학 활동에 수석교사가 전적으로 주력하고, 전 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내 시범 공개수업 술선수법, 동료교원과 수평적 관계라는 인식개선, 낮은 자세로 현장지원을 할 때 교직원간의 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필요성



유 병 국 의원
| 천안 |

“2012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10년에 비해 전국이 30.6% 감소하였지만, 우리 도는 가장 높은 9%나 증가하였으며, 총 7만 호에 달한다”고 말했다.

“타시도가 적극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혜자를 확장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30%나 감소시킬 동안, 우리 도가 매우 소극적인 수준의 개입만 하며 체면치레한 것이 부끄러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유병국 의원은 그 대안으로 첫째,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도내 주거빈곤가구에 절실한 주거복지 지원과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지사의 주거 복지정책수립을 의무화 하고, 주거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거빈곤의 전담 상담창구가 마련되고, 주거빈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이어서 도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 종 화 의원
| 홍성 |

신 도청사가 이전을 완료하였지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은 당초 2014년까지 사업완료 시점을 202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수정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요청 하였고 현재 전체 공정율도 24%에 불과하여 도청 이전추진과 비추어 볼 때 너무 부진하여 개발을 촉구하였다.

“2012년말까지 사업완료 내역을 보면 정신문화 창달사업 5건중 1건, 문화유적 정비 사업 36건중 5건, 관광휴양시설사업 9건중 4건을 완료하였으나 기반시설확충사업은 10건중 1건도 완료가 안됨. 이처럼 사업추진이 극히 지지부진하고 일부 개별사업으로 사업발주 조차 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국비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부족으로 공정률이 0%인 사업도 대련사 진입도로, 내포권 연계도로 등 14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내포문화권 사업기간 연장과 예산확보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구했다.

5분발언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3. 7. 11)



2016년도 가장 기억에 남는 전국체전을 위한 출발



이 광 열 의원
| 아산 |

2016년은 전국체전을 통한 충청남도 브랜드 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체전은 천편일률적인 기획에 체전순위가 마치 각 시도 단체장의 중요 치적처럼 인식하고, 판정시비가 끊이지 않는 치졸한 행태가 반복되며, 3만 명이 넘는 선수단과 임원들로 교통과 숙박은 쉽게 포화상태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후진적 인프라로 스포츠 마케팅에 아예 관심조차 없어, 그동안 경기대회나 전지훈련 유치실적 통계와 목표조차 만들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프레대회를 축제의 전초전으로 삼아야 하고, 둘째 방문객 소비지출 극대화를 위해 전국체전을 흥타령축제, 백제문화제, 계룡군문화축제 등 지역 이벤트와 연계하여야 하고, 셋째 게스트하우스와 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며, 넷째 전지훈련을 유치해 스포츠 인프라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입지 보조금 폐지 움직임과 관련하여 적극 대응 주문



맹 정 호 의원
| 서산 |

“충남도가 그동안 입지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업을 유치해 왔는데, 제도가 폐지된다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더욱 위축되어 충청권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입지보조금을 통해 총 134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이들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141,871,890천원이며 앞으로 지원하기로 한 37,310,000천원을 포함하면 무려 179,181,890천원에 이른다.

입지보조금의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119,787,843천원으로 66.8%, 도비가 26,064,084천원으로 14.5%, 시군비 33,329,963천원 18.6%으로 국비의 비중은 높고 지방비의 비중은 낮았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되면 지방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조길행 의원
| 공주 |

2012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지방세 징수결정액 1조 1,785억원에서 511억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약 22%에 해당하는 113억원을 결손처분 하였다. 또한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2억 9천여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우리 도보다 세수가 약한 충북도의 83억 9천여만원에 비하면 11억여 원이 적은 것이다.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공공자금 운용에 신경을 썼더라면 세입이 더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당히 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공공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충남도정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원 공공성에 맞게 환자 편의기능 및 정부지원 확대



이종화 의원
| 홍성 |

4월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해 그 논란은 전국 지방의료원으로 일파만파로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도내 의료원의 운영적자가 천안의료원 39억, 공주의료원 17억, 홍성의료원 25억, 서산의료원 6억원이나 된다.

그렇지만 의료원은 수익성과 자립경영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료도 복지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된다. 병원은 사회 공공재이며, 공공의료원은 더욱더 수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기관이다.

서울시의료원에서는 가족이 아파서 입원을 했어도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이처럼 시민의 입장이 되어 일하는 서울시의료원처럼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케어와 편의를 생각하는 도정이 되어 행복충만 충청남도가 되었으면 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에 대하여



김문권 의원
| 천안 |

최근 대전시와 미래부의 MOU 체결을 통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기초과학 과학연구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핵심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능지구에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리고, 고작 58억원을 천안, 세종, 청원이 나눠 갖도록 하며, 생색내는 정부에 대해 충남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과학벨트 공약의 원안 사수를 위해 세종시, 충청북도와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래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포럼을 열고, 도민들에게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기능지구 내 기업과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연구기획안을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263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 19건 : 제정안 6건, 개정안 6건, 예산안 7건

제263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의안 전문은 충청남도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정활동 → 의안)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1.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발 의 자 | 이도규 의원 외 8인, 찬성 : 송덕빈 의원 외 18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이도규 의원 외 8인, 찬성 : 김홍장 의원 외 16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것임.

3.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시간이 지날수록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업무 또한 복잡 다기화 되고 있어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실정을 반영한 특화된 시책의 발굴 및 선순환의 문화예술정책 추진을 위함.

4.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찬성 : 이은철 의원 외 18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기존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정책을 선도하고 대 정전사태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절전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

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

| 발 의 자 | 유병국 의원, 찬성 : 권차원 의원 외 22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충남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도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6.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 지급 근거 마련.

개정조례안

1.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최근 시중 금리 하락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채권 매입자가 즉시 매도 시 환급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채권 이율을 인하하여 채권의 허위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시, 대금청구액 중 계약자 수익이 없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입기준 금액에서 제외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개발기금 재원 마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정부의 조직에 맞게 안전관리 기능을 소방안전본부에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이관,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수산정책 대응 및 유류사고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서해안유류 사고지원본부의 기능에 수산과, 항만물류과를 통합하여 해양수산국 체제로 개편.

3.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내포신도시 특성화 계획인 “자전거 천국도시”의 상징성에 맞는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에 앞서 자전거 출퇴근 및 이용활성화로 내포 사랑과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더불어 직원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용 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에 개정 필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5.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보조금 228억원을 2013년부터 4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최종 통보함에 따라,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에 도비를 출자하여 연차적으로 반환하고자 함.

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연가공제 사유(강등) 추가,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에 맞춰 조례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조항 삭제 및 법률 순화용어 적용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예산안 안건

1.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5.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국)** 는 회의를 개최하여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했다.

심사과정에서 도의회사무처 인력이나 예산운용에 대하여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소개



유병국 위원장



조길행 부위원장



조치연 의원



권차원 의원



김용필 의원



김홍열 의원



맹정호 의원



윤미숙 의원



조남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조례안 및 예산안 · 결산안 심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제263회 정례회기중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충남도립청양대학 · 공무원교육원 · 기획관리실 ·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증축설계비 등 총 5건 6억 4,000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소개



유병돈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강철민 의원



김홍장 의원



김용필 의원



김정숙 의원



김종문 의원



명성철 의원

| 충남개발공사 감사 |

— 부진한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공사결정 원인추궁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7월 3일 충남개발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강철민 의원(태안)은 기구조직 개편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직렬에 대한 배분이 적정해야 함에도 이번 개편안에는 복수직렬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중문 의원(천안)은 개발공사의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손실이 불가피하며, 당초 사업참여 결정이 수익창출 분석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식 무리한 사업투자로 피해손실이 커졌으며 이에 대한 당시 책임자의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청당동 공동주택사업, 돈모이용 아미노산 제조사업 등 수익성이 없고 위험부담이 큰 사업 추진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하고 신규 사업 참여시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 도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맹정호 부위원장(서산)은 아미팜의 돈모생산판매 중단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통해 결정 되었는데, 개발공사와 공동투자한 (주)에코엔의 반발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용필 의원(비례)은 돈모를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 중단과 관련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며, 민간과의 충분한 경쟁력도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경영진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퇴직 공무원 출신 영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돈모를 이용한 친환경 아미노산 제조 사업이 돼지털을 재활용 한다는 환경저감 등 공익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모사업 생산 중단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적 차원의 대응방안과 친환경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김홍장 의원(당진)은 신규사업 참여시 리스크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부분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유와, 송산 산업단지 분양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과 내포신도시내 대학용지의 경우 규모가 작아 입주희망 대학이 없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유병돈 위원장(부여)은 개발공사에서 신규사업 결정시 공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와 도민에게 꼭 해야 할 사업인지 판단해 결정했어야 하며,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향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

▶ 조례안 및 예산안 · 결산안 심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제263회 정례회기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2건의 조례를 포함하여 총 3건의 조례를 심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 여성가족정책관실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녹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여성문화회관 기능 보강사업비 2억원 등 총 10건에 6억8,486만8천원을 삭감하였다.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문화재단 설립 관련 오랜시간 집행부와 의견교환이 있었고, 장고 끝에 통과되었다며 도민의 문화 향수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재단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미숙 부위원장(천안) 은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도내 의료원에 대한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중인 경기도 의료원과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충주의료원 등을 벤치마킹 하자고 제안했다.

박찬중 의원(금산) 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에서 식중독 검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질병 예방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우 의원(공주) 은 여성정책개발원에 추경으로 편성한 인력운영비 등 기본적인 예산을 즉흥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 은 2103년도 추경예산에 인건비로 1억 6,0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인건비의 경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맞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말했다.

조치연 의원(계룡) 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 운영경비 등의 예산을 5%까지 줄인다는 것은 도민의 건강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옥 의원(비례) 은 도내 우수한 어린 선수들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선수육성 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도규 의원(서산) 은 추경예산에 에이즈 및 성병실험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어떠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물으며,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공평하도록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소개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부위원장



박찬중 의원



윤석우 의원



유익환 의원



조치연 의원



김장옥 의원



이도규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 조례안 및 예산안 · 결산안 심사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제263회 정례회기중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고, 농수산국 · 경제통상실 ·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심사과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임에 역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거나 긴급한 예산인지, 과다계상되지는 않았는 지를 판단하여 충남경제진흥원 건물안전진단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4억 1,300만원을 삭감했다.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최근 농업분야에서 가공 · 유통 · 관광 · 서비스를 아우르는 '6차 산업화'가 창조적 혁신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생산 · 가공 · 관광 · 서비스의 단순한 집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산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의 심화를 통한 농업분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홍열 부위원장(청양) 은 수산연구소가 인건비 부족으로 6,900만원의 예산을 이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7,4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물었다.

고남중 의원(예산) 은 3농혁신업무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재정속에서 96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운용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응 의원(천안) 은 추경안에 맞춤형비로 지원사업비로 부족액 1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는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적정 비료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송덕빈 의원(논산) 은 8. 25~8. 30 태풍피해 어항복구 사업비로 131억원 중 66억5천만원은 명시 이월하고, 66억 5천만원을 사고 이월한 사유에 대해 물었다.

이종화 의원(홍성) 은 대기 등 환경오염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해야 할 친환경농업부서의 집행잔액이 77억 이나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었다.

조길행 의원(공주) 은 축산농가 육성사업과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수령액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7억 4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물었다.

조이환 의원(서천) 은 농촌의 노령화 시대에 대응, 노동가능한 유희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형 협업적 일감을 발굴, 3농혁신 5대 전략과제사업에 포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소개



이종현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



고남중 의원



송덕빈 의원



김득응 의원



이종화 의원



조길행 의원



조이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예산안 · 결산안 심사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제263회 정례회 기간중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추경 목적에 맞는 긴급한 예산인지를 따져보고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며 행사를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 ·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5,898억원으로 기정액 5,589억 대비 309억원이 증액되어 5.51%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655억원으로 기정액 543억원 대비 112억원이 증액되어 총 기정액 6,132억원 대비 421억원이 증액된 6,553억원 규모이다.

유병기 의원(부여)은 우리 도의 경우 도로 및 하천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산적인 민원사업이 많은데도 추경 편성안을 보면 세입예산이 94억여원 증액에 불과한 이유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국비확보 노력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김기영 의원(예산)은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중 도비 기정액 26억 9,600만원에서 30억원이 증가한 56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도비만 증액 했는데 사업비 지원조건이 광특 90%, 도비 10%인데 광특규모는 변경 없이 도비만 증액하여 도비부담이 증가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광특부담 확보를 촉구하였다.



김문권 의원(천안) 은 낙후되고 노후화된 농어촌마을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국비 10억원 등 12억 1,428만원을 예산계상에 대하여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유기복 의원(홍성) 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기정액 (323억 3,700만원)대비 67.76%에 해당하는 219억 1,200만원이 삭감한 것은 우리도 전국 교통사고 최하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안전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권처원 부위원장(천안) 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기정액(237억 6,000만원) 대비 16.67%에 해당되는 39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19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연초 수립했던 사업 중 규모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를 지적하고 신중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다.

유병국 의원(천안) 은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사업 중 소방청사 기능보강 18억 7,500만원과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중 소방헬기 구입 100억원 전액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차후에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 예산에 편성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광열 의원(아산) 은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한 첨단구조장비 등 구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사업비가 감액되고,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사업도 66.11%로 대폭 감액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사업들의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소개



박문화 위원장



권처원 부위원장



유병기 의원



김기영 의원



김문권 의원



유기복 의원



유병국 의원



이광열 의원

교육위원회

▶ 예산안 · 결산안 심사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 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충남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 비해 1,053억 9,302만원(4.2%)이 증가된 2조 6,154억 3,115만원으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세입 · 세출예산의 변경내역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초점을 맞추어 심사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조남권 부위원장(교육)은 수석교사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를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여 보수지급 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도, 이번에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을 지적하고 단위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형달 의원(서천)은 서천교육청 이전사업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건물이 기울어져 직원 및 민원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하루 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인데,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정확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였다.





김석곤 의원(금산) 은 학부모 및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 해소 목적인 학습준비물지원 사업의 예산을 9개 지역교육청이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및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은 없었는지 묻고,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철 의원(교육) 은 학부모 부담 해소 및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가 21억 3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액된 사유를 묻고, 이로 인한 유치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은철 위원장(교육) 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교육청 예산 검토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고 엄중한 심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와 같은 눈으로 도민들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이 아닌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길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철 의원(아산) 은 도교육청 금년도 추경 포함된 예산이 2조6,154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조 8,388억원보다 2,234억원이나 줄었다며 증액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진환 의원(천안) 은 컴퓨터교실 구축비로 본 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해 놓고 추경에 전액 삭감한 이유를 묻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명노희 의원(교육) 은 매년 결산심사시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하고 다음 해에 또 적지않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정확한 추경 예산 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동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의원 소개



이은철 위원장



조남권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이기철 의원



이진환 의원



김지철 의원



명노희 의원



서형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4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 증축 설계비 5,000만원, 백제역사 아카데미 운영비 5,000만원, 충남 경제진흥원 건물 안전진단비 5,000만원 등 모두 11건이다.

이로써 충남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2,60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13억원보다 6.4%인 3,19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교육청은 2조 6,154억원으로 당초 2조 5,100억원보다 4.2%인 1,054억원이 증액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소개



김석곤 위원장



이도규 부위원장



김종문 의원



명성철 의원



김홍장 의원



김정숙 의원



유익환 의원



김장옥 의원



김득웅 의원



조길형 의원



조이환 의원



고남종 의원



권처원 의원



이광열 의원



박문화 의원



유병기 의원



유기복 의원



이기철 의원



김지철 의원



조남권 의원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위 삼성규탄대회 참가,
정부의 실질적 배보상 및 사고원인자인 삼성에 사회적 책임
강력 촉구”

7월 2일 서해안유류사고 관련 피해민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피해주민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충남 6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전남·북 5개 시·군(군산시, 부안군,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에서 모인 서해안유류사고 피해민들은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고원인 제공자인 삼성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정부에 대하여 유류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지원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집회를 통해 정부와 삼성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서해안유류피해민 총연합회는 삼성사옥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 위원들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해민 4명이 목숨을 끊고, 피해주민 4,000여명이 고령 등으로 숨졌다. 더 이상 피해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면서 정부와 삼성의 책임 이행을 강력 촉구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윤진숙 장관이 피해주민을 살펴보기 위해 보령을 방문했을 때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였고, 충청남도의회는 5월 23일 열린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지원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를 비롯한 국회, 삼성중공업 등에 건의하는 등 피해주민들에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의원 소개



명성철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강철민 의원



김홍장 의원



유익환 의원



이종현 의원



서형달 의원



유기복 의원



이도규 의원



이중화 의원



조이환 의원

연구모임 · 토론회

|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모임 |

| 구성원(10명) |

구분	성명	소 속
대표	권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김재갑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 · 충청남도회
회원	유병기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회원	김문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회원	유병국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회원	이광열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회원	허재영	대전대학교(토목공학과)
회원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회원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 · 세종시회
회원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 · 충청남도회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모색

건설업계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다

충청남도의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대표 권처원 의원)는 6월 21일 서산 부석간 지방도 확 · 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도의원과 건설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연말까지 활동계획인 본 연구회는 건설경기가 불황인 요즈음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토론회를 통해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다.

도내 지역 업체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경기침체에 따른 SOC 투자 축소와 대안 마련과 대형공사장들의 하도급 일정비율을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연구모임 회원들은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른 산업과의 전 · 후방 연관효과 창출과 대형공사장 지역 업체 하도급 의무 비율 마련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침체된 건설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내포문화권 연구회 연구모임 |

| 구성원(10명) |

구분	성명	소속
대표	이종화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간사	강종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회원	김기영	건설소방위원회(특위)
회원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회원	유익환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명성철	행정자치위원회(특위)
회원	조이환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회원	박태신	내포지방고대문화연구소
회원	권성하	대전일보
회원	김경수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내포문화권 정체성과 유적관리 현안 논의

홍북면 석택리 유적지, 삽교읍 이리 토성 등 현장 탐방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종화 의원)** 은 7월 11일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발굴된 문화유적지와 예산군 삽교읍 이리에 있는 성토 유적지를 탐방하고 내포문화권의 정체성과 문화유적지의 관리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탐방에서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내포신도시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주거지와 환호, 석곽묘 등 중요 문화유적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한 추진과 향후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대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탐방에서 연구회 대표 이종화 의원은 “내포문화권의 정체성과 문화 유적을 제대로 알고 내포문화의 중요성과 발굴이 정체되어 있는 내포문화 연구의 첫걸음”이라며 말하고 “연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활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구모임 · 토론회

|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

| 구성원(9명) |

구분	성명	소 속
대표	이도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김장옥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조치연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유익환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윤미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회원	김영운	천안시 노인복지관 관장
회원	박상규	아산시 시니어클럽 관장
회원	신기원	신성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회원	최은희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선진지 벤치마킹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만드는데 노력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대표 이도규 의원)은 7월 1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서울 소재)과 송파구 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시니어클럽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용주 원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고령친화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노인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의 실정에 맞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도규 대표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내역을 묻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노인들에게 우리사회가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충남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 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

| 구성원(10명) |

구분	성명	소 속
대표	서형달	교육위원회 의원
간사	장용환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사무국장
회원	김성윤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회장
회원	류창기	호서대 초빙교수
회원	서문동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부회장
회원	강해자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회원	김석곤	교육위원회 의원
회원	이진환	교육위원회 의원
회원	김홍열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회원	이종화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해군2함대 방문, 안보현장에서 통일의지 다지다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 안보교육 강화하는 계기

충청남도의회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서형달 의원)은 7월 12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천안함 장병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희생자에 대한 '목념'을 시작으로 영상물과 유품 관람, 연평해전에 참전한 전 남함을 견학하고, 천안소재 충남 통일교육협의회에서 통일교육 담당 교사를 위한 강의 자료를 직접 참관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에 안보현장 중심의 통일안보 교육을 벤치마킹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하반기 추진될 연구모임 과제에 대한 협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연구모임 · 토론회

| 주거복지지원 정책토론회 |

| 참석자(7명) |

구 분	성명	소 속
토론진행 (좌장)	김의영	백석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2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토론자	정재호	목원대학교 교수
	김관호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주택정책담당
	김영수	천안시의회 부의장
	최병우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장

자립기반 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마련해야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추진

유병국 의원,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정책토론회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토론회가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주관으로 천안에서 개최됐다.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백석대학교 김의영 교수 사회로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소장의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정책 현황 및 주거권 확보방안' 과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의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 이라는 발제에 이어 정재호 교수(목원대학교) 등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소득 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거약자들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내포주변지역 발전방안 토론회 |

| 참석자(8명) |

구 분	성명	소 속
토론진행 (좌장)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주제발표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박근안	덕산면 번영회장
토론자	최재왕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
	전병성	삼교읍 개발위원장
	성광식	LH 내포직할사업단장
	유영배	예산군의회 의원
	박호동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의 균형발전 방안 강구

김기영 충청남도의회부의장, 예산발전위원회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부의장(예산) 과 예산발전위원회는 6월 19일 오후 2시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환황해권 시대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지역인 주변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박사가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조기 정착과 중장기적 발전동력 확보”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기영 부의장은 “도청이전이 도내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 환황해권을 선도하며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세계적 명품도시로 성장하여 새로운 충남시대를 활짝 열어 가지”고 덧붙였다.



:: 포토의정

06~07 2013



6월
13일

홍주종합경기장에서는 210만 충남도민의 화합마당인 제65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개막식과 함께 15개 시군이 3박 4일 일정으로 경기에 돌입했다.



6월
24일

충청남도의회 제263회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7월
2일

문예회관에서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아 도내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신여성동력을 깨우기 위한 제31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하였다.



7월
10일

2013 생활개선회 충청남도연합회 화합대회를 유관순체육관에서 가졌다.



7월
11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고위원,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남도청을 방문하였다.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궁금했어요

2013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충청남도의회 청사를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도의회 청사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06월 03일
아산 소망교회 학생 의회청사 견학



06월 05일
홍성 장곡면 가곡리 주민 의회청사 방문



06월 11일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견학



06월 14일
공주시 새마을회원 의회청사 방문



06월 14일
공주시 우성면 주민 의회청사 방문



06월 19일
보령시 의정동우회 의회신청사 방문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궁금했어요

2013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충청남도의회 청사를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도의회 청사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논산시 번우회 회원일행 의회신청사 방문



보령시 이용사협회 회원 의회신청사 견학



보령시 청소면 장곡2리 주민 의회청사 방문



논산시 연무읍 부녀회원 의회청사 견학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의회청사 견학



근흥면 6.25참전용사 일행 의회신청사 견학



청양 지역주민 의회신청사 견학



보령시 웅천면 수부3리 주민 의회청사 견학



태안읍 농촌지도자 회원 의회청사 방문



보령시 대천농협 임원일행 의회신청사 견학



논산시 연무대 노인대학생 의회청사 방문



당진시 신평면 주민 의회방문

9월에 열리는 즐거운 축제



금산인삼축제 9.6~9.15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홍성내포문화축제 9.26~9.29
홍주성 일원



예산옛이야기축제 9.26~9.29
의종은형제공원, 예당호조각공원



백제문화제 9.28~10.6
공주시 · 부여군

의회사무처 소식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직원 연찬회, 자연에서 배우고 깨달아

충남도 의회사무처(처장 구삼회) 직원은 8월 12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찬회를 실시했다.



의회사무처(처장 구삼회) 당부말씀, 세령게티 생존경영



의사담당(양천호) 지방의회 운영



청양대학 김미점 교수의 만성피로탈출을 위한 건강증진 신체활동



문화복지위원회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 운영

모바일세상 속 충청남도의회

+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가 새단장을 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의회 모바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생중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PC버전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산뜻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만나는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세요.

+ 접속방법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council.chungnam.go.kr) 입력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설치) ② 안드로이드 마켓에 “충청남도의회” 검색 후 앱 설치 ③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의회” 검색하여 앱 설치(내폰으로 보내기) ④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소개



의장인사말, 의회구성 및 조직, 전화번호, 찾아오시는 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입법예고, 위원회활동



연간회기일정 및 일자별 회의일정



현역의원 및 역대의원 정보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진자료



업무보고, 연구모임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 의회소식지



의안소개, 검색, 통계정보



회의록 열람



의회 회의상황을 실시간 LIVE 및 녹화영상 중계 의회소식지



의원5분발언, 도정질문 등 홍보영상 VOD서비스



의회에 바라는 사항 등록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를 클릭하세요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